

조선업계, 노사갈등·인력난 ‘비상’

추석 앞두고 파업 긴장감 고조
인력난 여전... 개선 방안 묘연
업계 “갈등 피하고 힘 모아야”

추석을 앞두고 조선업계가 파업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호황을 맞고 있는 조선사들이 노조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이 올해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한창이다.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은 4일과 오는 9일 파업을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사들은 잇달아 수주를 따내며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8월 아시아 소재 선사와 1973억원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67억1000만달러의 수주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인 135억달러를 넘긴 수치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도 올해 들어 각각 53억3000만달러, 49억달러를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치의 50%를 넘겼다. 한화오션은 올해

부터 수주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노사 관계는 냉랭하다. 노사갈등은 선박 건조 및 진수 업무 등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조선사들의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 선박 건조가 지연될 경우 지체 보상금과 계약 해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8월 30일 21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임단협 제시안을 요구했으나 아직 사측의 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노조 측은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을 추가 요구했고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금지도 단체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을 두고 노사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5월 2023년 경영 실적에 따라 RSU 300%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경영 실적 미달로 인해 RSU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는 최근 사측이 제안한 기본급 3.8% 이상 인상, 임단협 타결 격려금 100만원, 흑자 달성 격려금 100만원 등의 안을 거부했다.

인력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해

연간 약 1000만 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에 달하는 국내 적정 생산량을 감안했을 때 올해부터 1만20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027년에는 13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선노연은 추석 전까지 교착상태가 유지된다면 오는 19일 추석 연휴 이후 파업 계획을 다시 수립할 방침이다. 업계는 조선사 노사가 추석까지 보름 내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견 차이가 커 원만한 타협을 이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조 측이 더욱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팽배하다. 노조는 지난해 업황 및 실적 개선에도 비교적 빠르게 단협을 마무리하며 양보했다는 입장인 만큼 올해는 합당한 대가를 바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조선사들은 노조의 제시안을 검토하며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역시 교섭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가 16년 만에 호황기를 맞이한 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사 갈등을 피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모델이 LG그램 프로를 활용하는 모습.

/LG전자

LG전자, AI PC ‘LG그램 프로’ 공개

인텔 차세대 프로세서 탑재
AI 처리 성능 이전 세대 3배

LG전자가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해 전작 대비 3배 더 강력해진 인공지능(AI) PC ‘LG그램’을 공개했다.

LG전자는 독일 ‘IFA 2024’를 앞두고 3일 진행된 인텔 차세대 프로세서 출시 행사에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시리즈 2)’를 탑재한 16형 ‘LG그램 프로(Pro)’를 처음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에 공개된 ‘LG그램 프로 16’을 포함해 차세대 AI 프로세서를 탑재한 LG그램 시리즈를 연내 글로벌 주요 시장에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PC 출하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억654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IDC는 AI PC의 등장이 PC 시장 확대를 이끌 것이라며 오는 2027년에는 전체 PC 출하량 가운데 AI PC의 비중이 약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LG그램 프로에 탑재된 새로운 프로세서의 AI 처리 성능은 이전 세대 대비

3배 더 강력해졌다. 전력 효율은 최대 40%, 그래픽 성능도 최대 50% 더 향상됐다. 특히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신경망처리장치(NPU) 성능 역시 크게 향상됐다. NPU는 AI 작업에 필요한 복잡한 수학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전용 프로세서로 뛰어난 효율성과 성능, 전력 절감 효과 등이 장점이다.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손꼽힌다.

인텔 차세대 프로세서에 탑재된 NPU는 ‘초당 최고 48조 회 연산’이 가능하다. 이전 세대 대비 4배 이상 향상된 AI 연산 성능을 기반으로 최신 생성형 AI는 물론 다양한 AI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윤석 LG전자 IT사업부장은 “LG그램은 출시 이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초경량 노트북 트렌드를 선도해 왔다”며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진정한 프리미엄 AI PC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영상 제공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YouTube



최태원 SK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빌 헤거티 의원(왼쪽 네번째)을 포함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그룹

SK그룹, 美 상원의원 대표단 맞이

최태원 “SK, 한·미 AI 리더십 강화 기여”

(SK그룹 회장)

최 회장, SK그룹 주요 사업 소개
에너지 분야 등 경제협력 방안 모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AI 리더십 강화 등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4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빌 헤거티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7명을 만났다. 최 회장과 상원의원 대표단은 SK를 비롯한 한국 기업에 대한 초당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양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상원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른다. 공화당 의원은 빌 헤거티(테네시), 존 톤(사우스다코타), 댄 설리번(알래스카), 케이트 브릿(앨라배마), 에릭 슈미트(미주리) 의원이다. 민주당은 크리스 쿤스(텍사스)

워), 개리 피터스(미시건) 의원이 함께 한국을 찾았다.

최 회장은 “작년에 이어 상원의원 대표단을 두번째로 맞이하게 됐다”며 “SK와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상원의원단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SK그룹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SK가 양국 발전에 포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SK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의 AI 리더십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K의 에너지 사업 또한 글로벌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사업은 경제는 물론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원의원들도 다방면에서 양국

의 협력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미국 의원들은 “양국 관계는 한미 동맹 등 분야에서 강력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두 나라 발전에 SK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움직임이 한미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의 공동 발전과 전세계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SK의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글로벌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준형학술원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미국에서 TPD(Trans-Pacific Dialogue)를 개최하고 한·미·일 3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싱크탱크, 재계 인사들과 함께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 갤럭시 워치 측정데이터 정확도 입증

미시간대 연구기관 협업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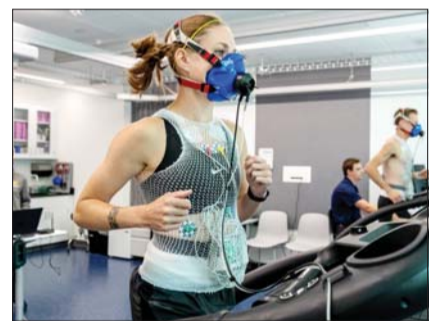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의 피트니스 측정 데이터가 정확도를 입증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기관 ‘휴먼 퍼포먼스 및 스포츠 과학 센터(HPSSC)’와 협업한 연구를 통해 갤럭시워치의 피트니스 측정 데이터의 정확도를 입증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HPSSC와 함께 갤럭시워치가 측정하는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삼성전자는 최근 진행한 연구에서 갤럭시워치와 임상·연구용 전문 장비로 심박수, 땀 손실 추정치, 최대 산소 섭취량, 체지방률 등 건강지표를 동시 측정된 결과 정확도 측면에서 두 데이터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는 갤럭시워치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뛰어난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먼저 달리기 운동 중 심박수 결괏값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실험에서는 피실험자가 착용한 갤럭시워치로 측정된 심박수와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전문 심전도 장비의 측정값이 90%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삼성전자와 미국 미시간 대학교가 협업해 진행하는 갤럭시워치 피트니스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이 ‘갤럭시워치’를 착용하고 심박수를 측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또 2.5km부터 20km까지 다양한 거리를 달렸을 때 땀 손실 추정치를 측정 및 비교한 결과, 전문 장비와 갤럭시워치 측정값은 95%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임상·연구용 전문 장비 측정값과 82%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갤럭시워치로 측정된 체지방률 데이터는 체성분 분석 표준 장비인 DEXA 체성분 분석기가 측정된 값과 비교했을 때 95%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박현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팀장은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과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해 더욱 정확하고 혁신적인 피트니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